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사례분석과 과제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발전의 방법으로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은 민박,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침체되어 있던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관광을 추진하여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침체되는 가운데 농촌관광이라는 새싹이 자라는 중이며, 농민들의 자각, 도시민의 여가의식 성숙,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2002년에 18개 마을, 2003년에

는 26개 마을, 2004년에는 32개 마을 등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 등 농촌관광의 붐을 일으켜 도농 교류에 의한 마을의 소득증대는 물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 ~ 2016년까지 850개소를 목표로 2006년까지 190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신규로 84개 마을을 조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이다. 또한, 2004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는 별도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단위 추진체계의 정비를 기반으로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은 2002년부터 9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의 고유한 농촌 전통테마를 발굴·보존하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999년 5월부터 ‘팜스테이(farm stay)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까지 243개 마을을 지정하였고,

참여농가는 총 3,421가구이며, 연간 2백만 명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강신겸, 2007).

이처럼 농촌관광을 농업·농촌진흥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욕적인 시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촌관광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영형 농촌관광, 지역내 산업의 복합화, 네트워크의 형성과 마케팅 등 농촌 스스로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농촌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협과 학계, 기업체, 한국농촌공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도 많은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학계, 관련기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고, 농촌관광에서 산학협력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농촌관광의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농촌관광의 동향과 제도 변화

1. 농촌관광의 개념과 특성

1) 농촌관광의 개념

농촌관광(Green Tourism)은 ‘자연이 풍부한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 그 자연, 문화,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활동’을 의미하며, ‘농촌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유 있는 휴가’라고 정의된다. 농림부에서는 ‘농·산·어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농촌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다르며, 각 나라의 농촌환경과 자연자원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에서는 ‘농촌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농촌지역을 도시민의 관광 수요에 대응케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정운, 1999).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 문화, 인간적인 만남으로서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조록환, 2003).

한국관광공사(1996)에서 정의하는 농촌관광은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시관, 자연학습관, 지역특

산물 판매, 체육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거나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신겸(2002)은 농촌관광은 '도시민들이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농촌관광은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특산물, 전통문화생활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과 체험 등의 여가활동 및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농·산·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농촌관광의 특성

농촌관광 관련 사업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반 정비사업이라는 큰 원칙에서는 비슷하지만 각 부처의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 사업을 차별화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을단위를 개발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의 연계성이 높은 마을단위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별 농업인 또는 경영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취약지구개발계획, 취약구

조 개선 기본계획, 문화마을조성계획 등이 대부분 정주기반을 정비하는 계획이었으나 마을단위 농촌관광 개발 사업은 기존 마을단위 정비 사업을 관광 목적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지원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여가·체험·교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마을 여건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농·림업,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특색있는 메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개발·보급토록 하고 있다. 국내외 실천사례에서 정부·지자체 사업, 시책 및 금융·세제 활용, 마을 또는 지역경영, 특히 경영기법, 리더십 등의 경영교육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점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

셋째, 시·군 차원에서 타 분야 시책·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유도하여 마을가꾸기를 추진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생활환경 정비 및 축제 등 지역의 주요 이벤트와의 연계도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공·판매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업·농촌체험·교류활동의 소득사업화를 위한 소규모 2차(가공), 3차(판매)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넷째, 마을(지역)에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중앙단위에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이른바 공모방식을 취함으로써, 일선 자치단체 내지는 마을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하드웨어는 사업모델 제시를 위한 시범마을 조성을 중심으로 유관사업을 연계하되 개인이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 지자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를 일괄 보조(포괄 보조)함으로써 마을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이나 일선 시·군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 것도 큰 변화이다. 지원요건은 마을 내, 지역 내 합의와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다섯째, 이 정책 사업들은 추진 방식과 사업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여러 부처가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 자율에 의한 사업추진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농촌의 물리적인 시설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관광소득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가속화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각 부처별로 농촌관광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농촌관

광이 활성화되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박윤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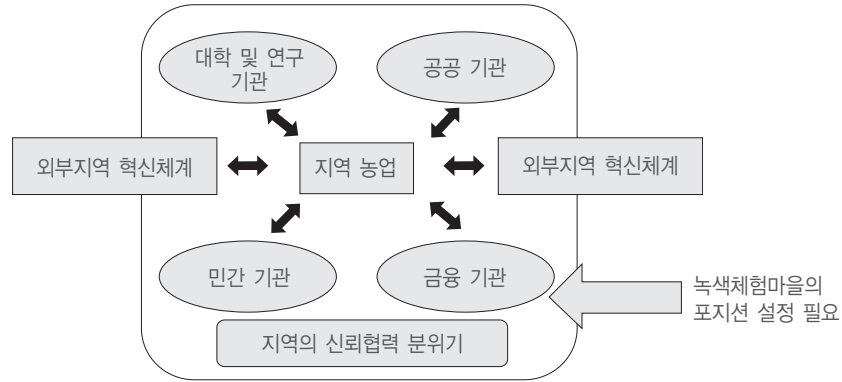
2. 농촌관광과 지역협력체계

1) 농업과 지역혁신

지역농업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업 혁신활동이 일정 지역을 단위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부교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역농업 혁신시스템은 대체로 다음의 그림과 같은 지역 구성체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조건으로서는 전문화된 생산체계, 지역의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 적절한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의 존재, 양질의 인적자본(문제해결 역량 소지자), 기업과 공공기구 사이의 협력, 혁신성 등이다.

결국 이들 성공조건은 최적 조합을 통한 녹색체험마을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조직리더가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성공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혁신 요소의 성격 규명과 역할, 사업의 성격 규명과 지원체계, 조직원과



[그림 1] 지역농업 혁신시스템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조직리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조직리더의 교육방안과 기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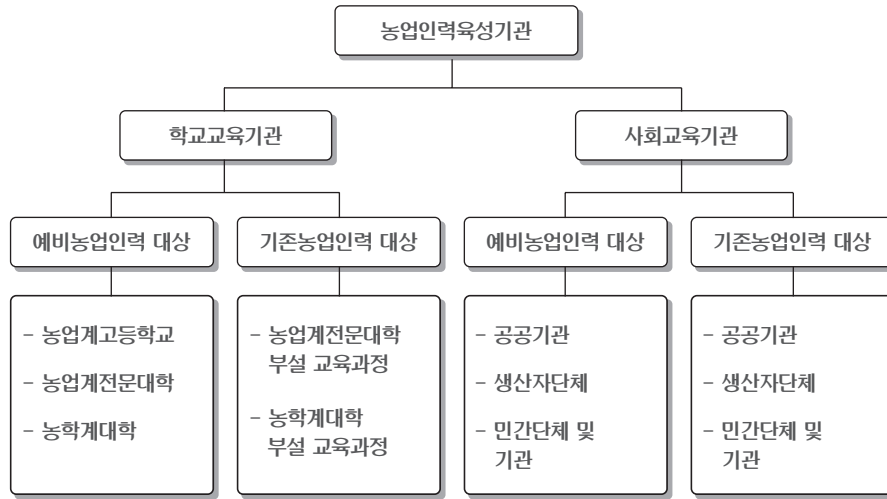
농업교육의 주안점은 농업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어린이, 농고생 등 농업 예비인력에 대한 농업·농촌 비전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끄는 농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기존 농업인력 육성은 학교 교육기관과 사회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농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설 교육원, 사회교육은 주로 민간위탁 교육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예비 농업인력과 기존 농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크게 교육전문기관, 일반교육단체 및 환경단체로 구분되며, 환경단체는 다시 생산자 교육단체와 소비자 교육단체로 재분류할 수 있다.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기존 교육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지식농업 실현을 위한 지식·기술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지도자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우리 농업을 주도할



[그림 2]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분류(교육대상별)

자료 : 박문호,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식농업 인력육성 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영농고생 선진농장 실습교육과 농업인 신지식기술 현장체험교육 및 세미나과정을 개설하였다.

둘째, 창업 예비농 및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정시책 및 전문분야별 기술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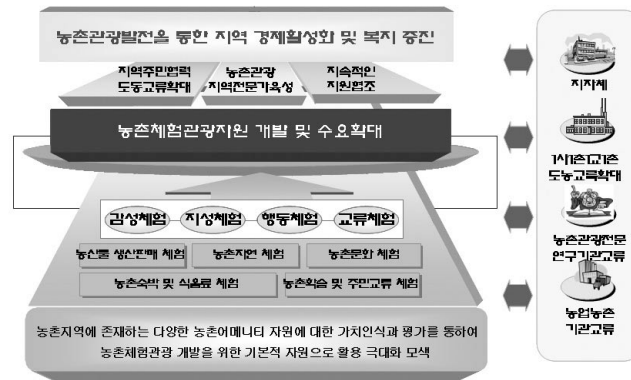
셋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및 성숙단계의 교육 강화 차원으로 정보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실시, 영농학생 전진대회 수상자 해외 연수과정 등을 신설하였다.

넷째, 농외소득 증대, 도농교류확대 및 농업·농촌 이해 증진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박문호, 2001).

3)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농촌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협력과 도농교류확대, 농촌관광 지역전문가 육성, 지속적인 지원협조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자원 개발과 수요확대가 이루어진다.

농촌관광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



[그림 3] 농촌관광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자료 : 윤유식, 홍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3차 워크숍자료 재인용, 2007.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1사1촌1교1촌 도농교류 확대, 농촌관광전문 연구기관과 교류, 농업농촌기관과의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윤유식, 2007).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지역은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적·물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내 운영시스템 구비와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하는 지역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자치단체가 개성있고 특색있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살기좋은 지역 기본모델로 참조할 수 있도록 지역만들기 테마별로 다양한 모델유형을 개발하였다. 2006년도에는 지역의 수요가 높은 9개 기본모델을 우선 개발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 개별부처별로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지역모델 중 9개 기본모델로 체계화 하였다. 자치단체에서는 9개 기본모델과 기본모델별 특화형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주체는 마을주민, 정부,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을 포함한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반드시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표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9개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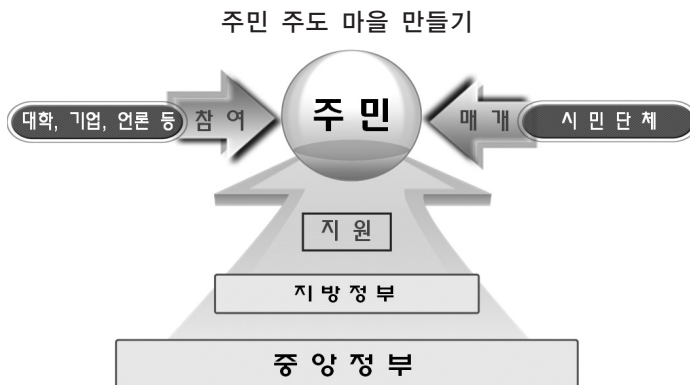
기본모델	주요 내용	특화형 예시
산업형	• 지역소재 산업 지원을 통한 마을조성·발전	• 향토산업형, 외부기업유치형 등
교육형	• 교육특화를 통한 커뮤니티 강화	• 학교교육형, 평생학습형 등
정보형	• 지역에 풍부한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화마을형, U-village형 등
생태형	• 양질의 환경 및 생태를 자원으로 활용	• 수변공간형, 녹색교통형 등
전통형	•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	• 전통마을형, 전통시장형 등
문화형	•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	• 문화예술지향형, 문화산업창출형 등
관광형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 스포츠형, 가족리조트형 등
건강형	• 건강시설 및 문화조성을 통한 지역 재창조	• 건강장수형, 휴양형
가족형	• 보육, 요양,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한 여건조성	• 돌봄네트워크형 등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지역 선정 추진계획, 2006.

한다. 주민주도의 지역 만들기만이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원자로서 참여하고, 시민단체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지니며, 대학,

기업, 언론 등은 전문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행정자치부,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유형별 계획에서 관광형 지역 만들기는 지역주민이 주도하



[그림 4]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 바람직한 민관협력을 위한 개념도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연구』보고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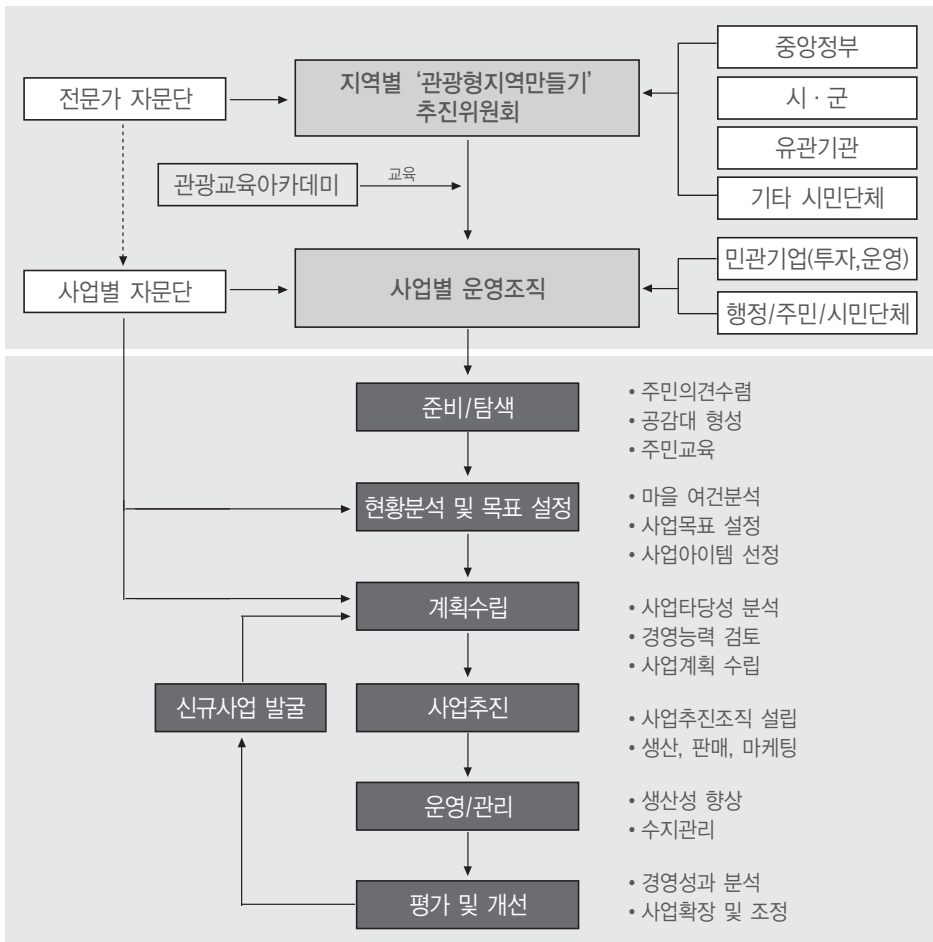
〈표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방식

구 분	목적 및 구성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력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안내해설자, 관리운영인력 등) 교육 및 훈련 - 조사 및 연구, 홍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역기업 상공인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쉽, 재정지원(스폰서십) - 민관합동(제3섹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 :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적 제휴 - 파트너쉽 : 참여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부여 - 대표집단 : 주민, 환경단체, 관련기업 등 조직의 대표자 모임 - 공공부분주도형 : 공공이 주도하여 민간부문 조직화 - 독립기관/조직 : 정부+기업, 민간단체가 참여한 독자적 개발, 운영조직의 성격, 민간부문간의 연대 속에서 개발, 지도, 조정, 자원조달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자본동원능력을 보완해 주는 수단으로써 적정한 정부 지원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중심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단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성과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지역주민이 부족한 기술과 정보 및 재정지원을 위해 정부가 정책지원을 통해 개입해야 하며, 특히 인프라와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직접보조와 융자지원 확대 - 외부 자본유치에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개발자본을 유치하고 주민과 정부 및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관광개발 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시·도 사업의 선정 체계, 사업추진과정(process), 예산집행 및 정산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 사업시행체계를 '선지원 후계획'에서 '선계획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동관심사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참여자 또는 기관의 역할과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 도시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를 형성 -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지역문화, 마케팅, 서비스, 회계, 시설관리 등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 기본 모델 요약 정리, 2006.

고 행정은 지원하는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계획과정 및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한다. 관광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민간 기업과 개인, 주민조합, 제3섹터 기업 등의 참

여가 있다. 대규모 관광시설인 경우 별도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만들기 차원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 5] 추진체계 및 기구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 기본 모델, 2006.

주민조직, 협의체 또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관광형 지역만들기 관련 재원은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로 조달하며 이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투자인 경우 행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관광 사업을 전담하여 기획·운영·관리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시설 조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에서 투자하여 설치하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공설민영(公設民營)사업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담당할 민간단체(NPO)를 육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행정자치부, 2006).

Ⅲ. 농촌관광을 위한 교육 및 산학협력 사례 분석

1. 농촌관광의 지원제도

농촌관광을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각 행정부서별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향후 지역활성화 혹은 지역의 환경변화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각 행정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특히, 농림부 농촌진흥과에서는 녹색체험마

〈표 3〉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 추진정책

행정부서	추진내용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관광휴양 자원개발, 문화마을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농진청)
행자부	아름마을 가꾸기,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마을정비, 빈집정비, 정보화마을 추진, 오지/도서 개발, 소도읍개발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환경부	생태마을
문화관광부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문화재청	전통민속마을, 전통문화마을, 유교문화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조직리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을 지원을 위한 녹색체험마을 정책 총괄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체험마을 정책 입안 및

정책수립, R&D예산, 예산 및 사업시행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녹색체험마을 사업조정 및 투융자 계획 수립, 타 농림사업의 연계지원과

〈표 4〉 녹색체험마을 운용체계

구 분	위원회 및 법인	목적 및 구성
녹색체험마을 지원·검토 위원회	농산업 녹색체험 마을 지원 및 검토 중앙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녹색체험마을을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조정, 예산·제도의 심의·의결을 행함 • 구성 : 산·학·연·관 관련자 10명 수준으로 운영
	녹색체험마을 시·도 지원 및 검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시·도 지역농업 녹색체험마을 클러스터의 발전방향 수립 및 시·군별 녹색체험마을 클러스터간의 사업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마을과 군 등의 지역경계를 넘어선 자연경관 등의 이용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산·학·관·연 관련자 10명 수준으로 구성
	농산업 녹색체험 마을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의 임무는 실제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마을 단위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내·외 참여 유도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녹색체험마을 사업운영을 총괄
	녹색체험마을 협회(추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기능을 추구함. 즉, 사업에 대한 행정의 대행과 교육 등의 기획 및 시행 등을 실시
조직형태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1 : 사단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형태2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사업의 시행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나 설립의 주체가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지칭 • 형태3 : 공기업형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녹색체험마을 사업의 참여주체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종합지원 창구역할을 수행
	비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1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형 녹색체험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기존의 농정심의회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사업의 기능을 수행 • 형태2 : 참여주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협의회형 - 지자체 및 해당 산업 관련 단체(기관)장과 지역내·외의 관련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적 모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조직리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정리, 2006.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셋째, 녹색체험마을 지원·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녹색체험마을과 관련된 상위정책의 심의 및 시·도 지원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상의 수행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농업 녹색체험마을 정책총괄을 위한 과단위에서의 별도조직과 전담지원을 위한 「지역농업녹색체험마을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시·도 및 마을단위의 정책추진자 및 사업자들이 신속하고 빠른 정보공유와 업무의 추진을 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방대한 지방조직에 대한 활용과 지금까지 축적되어져 온 노하우를 이용하여 녹색체험마을을 지원한다. 특히 R&D 부문에 대한 총괄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영정보관실에서 녹색체험마을 사업의 연구관을 임명하고 특성화대학 커리큘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정책과 클러스터 정책 및 녹색체험마을연계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농정에 있어서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녹색체험마을 육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구성주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연경관 및 체험여행 코스개발에 있어서 인근 시·군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체험마을 지원 및 검토 중앙위원회(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선정, 제도개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시·도 지원 및 검토위원회를 두고 이는 관내 녹색체험마을 사업계획의 심의, 지원과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수행하면서 하부조직으로서 녹색체험마을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을 담당한다. 이를 추진하는 정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 충청권 농촌관광을 위한 교육과 산학협력사업 사례

1) 충남 청양군 그린투어 경영대학 교육사업

청양군은 농촌관광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인력자원의 발굴과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농촌관광 마을가꾸기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및 도시민들의 관광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실시한 청양군 그린투어 경영대학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성격 : 농촌관광 지도자 양성과정
- 주최·주관 : 청양군
- 교육장소 : 청양군내 군포 청소년수련원

- 교육인원 : 50명(대상 : 희망농업인)
- 교육기간 : 2007. 11. 6 ~ 11. 16
(기간중 7일간)
- 교육과목 : 이론 및 현장학습, 분임토의
- 교육생 모집 : 읍·면장 추천에 의한 선발과
모집정원 초과시 청양군 선발
- 교육대상자 선발인원 : 50명
- 교육지원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그린-컴
시범마을 지원 및 희망(기 신청대상) 지역민
 -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선발방법(지원자가 모집정원 초과 시)
 - 교육지원자가 정원초과시 각마을 지도자
: 1순위 리장, 2순위 지도자, 부녀회장
 - 농촌마을별 3명이내 선발원칙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정원 초과시 접수
선착순 선발
- 수료증 발급 기준
 - 총수업시간의 80%이상 참석자
 - 수료증은 교육주관 기관장 명의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2) 충남 청양군 상갑리 주민과 마을리더 교육 및 견학

상갑리는 마을리더 및 주민의 농촌관광
의식 변화를 위하여 수차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
지 마을리더가 14회, 마을지역주민이 16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농촌체험관광에 있어서 리
더와 주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하여 시사해 준다.

상갑리는 농촌관광마을로서 활성화를 위하
여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삼성경제연구
소, 농촌진흥청, 청양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협중앙회, 농림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농협, 농촌관광 유관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주관·주최하는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역
견학을 추진하였다(이인배 외, 2005).

3)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사업단의 충청그린 프로젝트 사례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사업단에서는 1.5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범충청권 산·학 협력사업
으로 지역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충청
그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농촌
관광수용 태세 개선등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관광혁신기반을 조
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트
FTA’ 시대, 농촌의 新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
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하여 충청그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충청그린 프로젝트는 타운홈피 운영을 통한

〈표 5〉 상갑리 마을리더 및 주민의 농촌관광 관련 교육이수 및 선진지 견학 현황(2003년~2005년)

일 시	장 소	내 용	비 고(주관)
2003. 2.11~12	남제주군농업기술센터 어망아방 잔치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연찬	농촌진흥청
5.16	유성 스파피아호텔	- 한국문화와 농촌관광발전 및 전략 세미나	농촌생활연구소
9.24	서울 AT센터	-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심포지엄	농촌생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9.29~10.1	농촌생활연구소	- 농업인녹색관광과정 교육	농촌생활연구소
11.4~5	경주 세심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자 연찬	농촌진흥청
12.17~18	농촌진흥청	- 농촌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운영	농촌진흥청
2004.2.10~14	일본	- 농촌체험관광 해외연수	청양군
2.24~5.4(12주)	영농기술자협회 교육회관, 현지	- 녹색관광 최고지도자과정	전국농업기술자협회
3.30~31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옛날솜씨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평가 - 농촌다운마을가꾸기 실천전략 - 독일 산악마을의 지역개발사례 - 옛날솜씨마을 체험프로그램참여	농촌진흥청
7.8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 팜스테이마을 친환경농업 실천협의	농협중앙회
2005.5월	농협중앙회 교육원(안성)	-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
5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팜스테이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 친환경농업 실천방안	-
9월	홍성문당마을 교육관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농림부
9월	농협연수원(수안보)	- 친환경 컨설팅 보고회	농협중앙회
계	총14회		

자료, 이인배 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5.

주최측과 참가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우수 활동팀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가자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 기 간 : 2007. 7. 4 ~ 8. 30

- 현장 활동

· 1차 : 7. 9(일) ~ 7. 15(일)

· 2차 : 7. 23(일) ~ 7. 29(일)

- 사업평가보고회 및 우수팀 시상식 :

9. 14(금)

○ 장 소 : 충청권내 34개 농어촌 체험마을
및 관광농원

(대전 : 1개 체험마을, 충남 : 29개
체험마을, 충북 : 4개 체험마을)

○ 주요내용

- 1.5차 산업 육성 현장 활동 : 농촌마을
수용태세 점검 및 현장 개선활동 등
- 참가자 설명회, 우수팀 시상식 및 사업
평가보고회

○ 주 최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후 원 : 충남북 농업기술원, 대전농업기술
센터, 충청관광진흥협의회, 충청
관광발전진흥협의회

○ 참가자 : 충청권 관광전공 대학생 10개대
학 216명 / 지도교수 11명(4인
1팀 * 56개팀)
(대전광역시 : 2개교 29명, 충청
남도 : 6개교 91명, 충청북도 :
2개교 96명)

○ 기타

- 참가팀별 활동내용 및 농촌마을 특색을
담은 UCC 제작 독려, 향후 농촌 체험마
을 홍보컨텐츠로 활용

- 농업기술원/기술센터 공동 마을별 현안
사업 파악 후 활동 핵심 과제 선정

- 안전관리 대책

- 참가자 전원 현장 활동기간 상해보험
가입
- 참가자 대상 설명회 시 농업기술원/기
술센터 주관 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기간 중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수시 : 협력단, 농업기술원 공동)

충청그린 프로젝트의 개최 성과는 충청권
1.5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충청권 10개 대학, 대전농업기술
센터, 충남북 농업기술원, 34개 농촌마을과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관광의 중심지로서 충청권 농촌관광산
업에 경쟁력을 제고하여, 충청권 지역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의 시장활성화 촉진기반을 조성하였
다. 더불어 충청권 농촌관광의 고부가 가치화,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

- 사업기획 및 총괄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 부대행사 기획운영
- 사후 평가

농업기술원/기술센터

- 참가자 설명회 개최 지원
- 현장 활동 지도
- 심사위원회 참가
- 현지 활동관련 안전 관리

충청관광진흥협의회

- 참여마을 추천/심의
- 홍보지원
- 기타 행정지원

[그림 6] 참여 기관별 역할분담

충청 관광홍보와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지식을 활용한 체험마을 홍보, 마케팅 아이디어 제출 -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체험마을 브랜드 개발
수용태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태세 및 안전 점검 - 현장 개선 활동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소재 발굴 및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 연계 관광지 답사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성과 중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림 7] 참가자 주요 활동내용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관광전공 대학생과 현장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주요 현안사업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관광객편의시설 확충하고, 농촌관광상품유통 및 홍보지원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 하여 지원하고, 홍보자료 제작, 홈페이지 제작, UCC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07).

〈표 6〉 충청그린투어 프로젝트 주요 실적

구 분	실 적		비 고
참가규모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대학 - 지도교수 11명 - 학생 52개팀 207명 		
참가규모 (농촌마을)	○ 34개 마을		
현장활동 실적	농촌마을 관광수용태세 개선	372건	
	마을 홍보활동	226건	
	신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자원 발굴	231건	
	농촌마을 홍보 UCC 제작	19건	
	1사1촌 유치	1건	논산 고정리 민속마을
	대학/농촌 마을 MOU 체결	1건	우송대/당진 동물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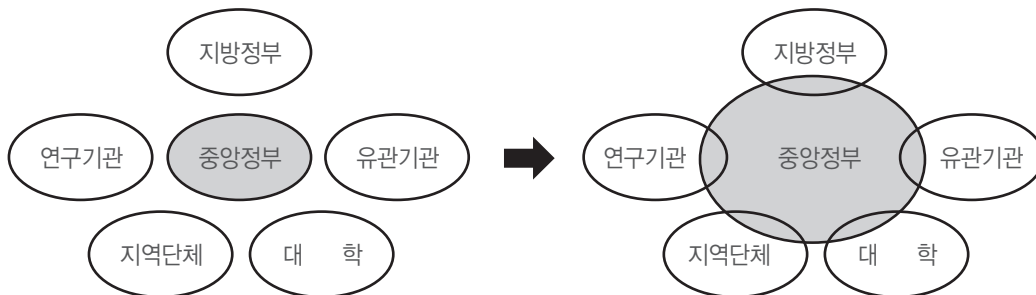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관광분야 대학생 역량강화사업 충청그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007.

Ⅳ.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의 과제

1. 농촌관광 사업의 통합적 협력 관계 시스템 구축

앞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관광의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유관기관, 지역단체, 대학 등은 각각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아래의 개념도와 같이 현재 농촌관광에서 교육과 인력양성, 도농교류, 1사1촌 자매결연, 컨설팅 등과 같은 산학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지역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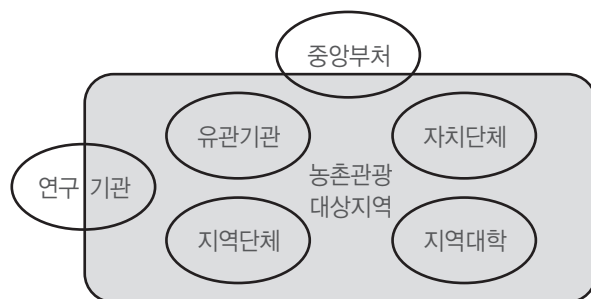
[그림 8] 농촌관광 통합협력시스템 구축 개념도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산학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든지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산학협력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사업 추진

농촌관광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의 단체나 유관기관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교류와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기관들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체제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개념도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촌관광과 연계된 지역의 모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촌관광 대상지역내에 있는 유관기관은 더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농촌관광의



[그림 9] 농촌관광의 지역유관기관 협력 개념도

인력양성,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농촌관광인력 양성사업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으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참여 기관별 역할 및 기능분담과 전문가 참여 촉진

농촌관광은 결국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대학 등을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자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촉진이 필요하다.

앞의 사례연구에서 살펴 본, 이번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의 사업과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사업이지만 한국관광공사, 농업기술원·기술센터, 충청관광진흥협의회 등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대학에서는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의 현장 활동 지도와 실제적인 농촌마을 방문을 통하여 활동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참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은 ‘충청 그린 프로젝트’에 참가한 활동보고서를 심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농촌관광사업은 기관별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뿐만이 아니라 기관별 역할과 기능분담,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을 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4. 농촌관광 관련 지역 대학 인력지원의 지원체계 마련

현재까지의 농촌관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농업기술원 등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지역의 우수인력인 지역 대학내 농촌관광 관련 학생들과 교수, 대학내 연구소 등의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지역의 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령화된 농촌인구 구조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내 관광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대학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 인력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별 인적자원개발센터와 대학, 지역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역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농촌관광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현재 농촌관광의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는 각 시도와 시군별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하여 인력양성 교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이다.

앞의 사례에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의 '충청 그린 프로젝트'와 같이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농촌관광의 산학협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 강신겸,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2.
- _____,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_____, 농촌관광, 대왕사, 2007.
- 논산시, 논산시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 2007.
- 박문호,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박정운,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 행동에 관한 유형-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윤호,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 등급화 방안",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윤유식, 홍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3차 워크숍자료, 2007.
- 이인배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5.
- 조록환,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 한국관광공사, 관광분야 대학생 역량강화사업 충청그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007.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 기본 모델, 2006.
- _____,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지역 선정 추진계획, 2006.
- _____,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보고서, 2007.